

[Research Paper]

소방공무원의 성인애착과 직무스트레스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장철인 · 김상옥*†

서영대학교 소방안전과 교수,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 교수

Mediating Effect of Ego Resilie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dult Attachment and Job Stress of Fire Officers

Chul-In Chang · Sang-Ok Kim*†

Professor, Dept. of Fire Protection and Safety, Seoyeong Univ.,

*Professor, Kyung Hee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Public Policy and Civic Engagement

(Received April 16, 2019; Revised May 7, 2019; Accepted May 9, 2019)

요 약

본 연구는 소방공무원의 성인애착과 직무스트레스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이 매개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통해 소방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 경감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근무하는 현직 소방공무원 48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SPSS 21.0을 활용하여 상관관계분석 및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성인애착의 불안정 애착과 직무 스트레스는 정적 상관관계, 성인애착의 불안정 애착과 자아탄력성을 부적상관관계, 자아탄력성과 직무스트레스는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 성인애착과 자아탄력성은 소방공무원의 직무 스트레스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탄력성은 성인애착의 불안정 애착이 직무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완전매개하며, 회피가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자아탄력성의 중요성과 소방공무원의 직업적 특성을 고려한 자아탄력성을 증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하며, 소방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의 수준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개인의 심리, 정신적인 요인도 같이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whether ego - resilience plays a mediating rol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dult attachment and job stress of fire officers, and to derive implications for job stress reduction of fire officers. A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for 480 fire officers working in Seoul and Gyeonggi - do, and correlation analysis and regression analysis were conducted using SPSS 21.0. The results showed that there was a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instability attachment and job stress in adult attachment,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instability attachment and ego - resilience in adult attachment, and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ego - resilience and job stress. Adult attachment and ego - The results showed that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stress. Ego - resilience was found to full mediate the effect of anxiety of adult attachment on job stress and to partial mediate the effect of avoidance on job stress. This study suggests the need to develop a program that can improve ego - resilience considering the importance of ego - resilience and the occupational characteristics of fire officer. This means that the psychological and psychological factors of the individual should also be considered in order to reduce the level of job stress of the fire service personnel.

Keywords : Ego-resilience adult attachment, Job stress, Fire officer

† Corresponding Author, E-Mail: kso1052@khu.ac.kr. TEL: +82-2-6085-6543, FAX: +82-2-6401-6543

© 2019 Korean Institute of Fire Science & Engineering. All right reserved.

1. 서론

소방공무원은 비상대기체계, 긴급성 등의 특징을 보유한 직무환경을 가지고 있으며, 각종 사고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어 타 직종보다 스트레스를 받기 쉬운 스트레스 고위험군이라 할 수 있다. 소방공무원은 기술직 및 사무직보다 스트레스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특히, 화재진압대원들의 스트레스가 다른 대원에 비해 높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소방공무원의 스트레스는 업무부하도와 역할모호성, 직무안정성, 대인관계 등으로 인하여 스트레스에 영향을 받고 있다⁽¹⁾. 또한, 계급적 특성을 가진 조직으로 인해 하향식의 일방향적인 의사소통, 경직된 문화로 인한 사고의 다양성 부족 등으로 인해 업무수행에 대한 직무스트레스를 상당히 경험한다⁽²⁾. Kang⁽³⁾은 예상하지 못한 각종 위험상황에서의 구조·구급, 재해 진압활동과 현장에서의 각종사고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소방공무원의 스트레스를 유발시키는 요인이라고 하였다.

Chae 등⁽²⁾은 소방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소방공무원 근무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소방공무원의 스트레스는 신체적 환경, 작업환경, 행정업무, 심리적 환경, 인간관계, 조직문화 등의 요인으로부터 유발된다고 구분할 수 있으며, 특히, 심리적 환경으로 인하여 소방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가 발생하고 있어 심리적 변수가 소방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유력한 예측변인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하였다. Lee⁽⁴⁾는 소방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연구를 통해 소방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요인을 소방직무의 특성, 소방조직에서의 역할, 동료관계, 경력개발, 소속부서의 문화적 요인, 소방조직의 문화요인, 그리고 소방조직 내에서의 스트레스로 구분하였다.

소방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선행연구를 종합한 결과, 위험에 노출된 직무환경, 지속적인 교대근무, 심리적으로 압박을 느낄 수 있는 비상대기 등 업무특성에 기인한 심리적 환경, 작업환경, 신체적 환경 등에 의해 소방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가 발생된다고 볼 수 있다.

Kobak와 Sceery⁽⁵⁾는 성인애착의 내적작동모델과 정서조절과의 관계에서 성인애착이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을 연구한 결과 성인애착 중 안정애착 성향을 보유한 사람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건설적인 행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성인애착 중 불안정 애착 성향을 보유한 사람은 본인에게 부과되는 스트레스를 심리적으로 부정하여 최소화하려고 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성인애착의 내적작동모델은 본인과 타인에 대한 스트레스 인식수준과 위협수준에 따라 활성화되며, 안정애착 성향의 사람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정보를 의식적으로 수집하고 절제하는 행동을 보이거나, 부정적인 내적작동모델이 형성된 사람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문제외면, 다른 일에 몰두 등 문제를 회피하는 경향을 보인다^(6,7).

선행연구에 의하면 성인애착은 스트레스 상황이나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는 상황에서 대처하는 능력과 관련이 있다. 안정애착 유형을 가진 사람은 자신에 대한 가치를 느끼며, 타인에게 호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스트레스 상황에서 주로 문제 중심으로 대처하고 사회적 지지를 활용하며 개인의 대처기술을 향상시키고 대인관계를 증진시킨다^(8,9). 몰입형 애착유형을 가진 사람은 정서 중심으로 대처하는 성향이 있으며, 거부형 애착유형을 가진 사람은 문제를 회피하고나 거리를 두는 방법으로 대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0,11).

Brennan과 Shaver⁽¹²⁾는 안정애착 유형의 사람은 사회적 지지를 통해 스트레스 상황을 대처하고 회피애착, 불안애착 유형의 사람은 음식섭취, 즉흥적 성관계, 음주를 통해 스트레스 상황을 대처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신성임⁽¹³⁾은 대학생 대상의 성인애착에 대한 연구에서 성인애착 유형에 따라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음을 밝혔으며, 안정애착 유형의 사람은 사회적 지지를 추구하고, 문제 해결을 중심으로 대처하며, 거부형 애착유형의 사람은 회피 중심으로 대처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성인애착이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밝히고 있으며 성인애착 유형에 따라 개인별로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차이가 있음을 이해하고, 각 유형에 따른 대처방법을 찾는 것이 스트레스 대처에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

Block과 Kremen⁽¹⁴⁾은 정신분석학적 용어인 탄력성에 자아(Ego)의 접두어를 붙여 자아탄력성(Ego-resilience)이라는 용어를 만들고 협의의 개념으로 개인의 감정을 조절하고 상황과 환경으로 인한 영향을 변화시키는 적응적 기질로 정의하였다. 또한, 광의의 개념으로는 내적, 외적 스트레스에 대해 유연하고 융통성 있게 대응하는 개인적인 능력으로 스트레스, 위기, 위험요소를 효과적으로 극복하는 성격 유형으로 정의하였다⁽¹⁵⁾. 자아탄력성은 특징적으로 개인의 자아통제를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¹⁶⁾ 자아통제의 수준을 적절하게 유지하며 역동적으로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제약과 가능성에 적응하는 능력이며, 장기적인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이다. 자아탄력성은 자아통제를 상황에 따라 강화 또는 완화시키는 메타적인 능력을 의미한다⁽¹⁷⁾. 국내연구를 살펴보면 자아탄력성은 개인적인 변인으로 조직생활, 가정생활 및 학교생활의 적응에 영향을 공통적으로 미치는 변인이며⁽¹⁸⁾, 환경에 적응하는 긍정적인 성격 자원이다⁽¹⁹⁾. 상황에 알맞게 문제해결 전략을 동원하고 융통성 있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며 개인의 역동적 특성을 의미한다^(20,21). 현대사회의 급격한 변화속에서 인간은 타인과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데, 타인과의 상호작용, 환경에 대한 적응능력의 개념을 자아탄력성이라고 한다⁽²²⁾.

본 연구에서 제시한 기존의 선행연구들에 대한 고찰은 소방공무원이 아닌 타 직종의 연구결과들이 대부분이며,

개인의 정신적인 특성인 성인애착과 자아탄력성을 주제로 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선행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소방공무원의 성인애착 특성과 직무 스트레스와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소방공무원의 성인애착, 자아탄력성, 직무스트레스간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둘째, 소방공무원의 성인애착이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셋째, 소방공무원의 자아탄력성이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넷째, 소방공무원의 성인애착이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소재 소방서에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5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며, 수집된 자료 중 일부 답변이 누락되는 등 불성실한 설문지를 제외한 480부의 자료를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은 성별, 연령, 학력, 경제수준, 근무경력 등 9가지 항목으로 구성하여 조사하였으며, 응답자에 대한 구체적인 특성은 Table 1과 같다.

2.2 측정도구

2.2.1 성인애착

본연구의 성인애착척도는 Fraley 등⁽²³⁾이 2000년에 개발한 성인 애착 유형검사인 친밀 관계 경험-개정판(Experiences in close relationships-revised: ECR-R)을 Kim⁽²⁴⁾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ECR-R는 성인을 대상으로 내적, 외적 차원의 성인애착 정도를 측정하는 검사도구이다. 본 연구의 성인애착 검사 하위요인별 개념은 다음과 같다.

ECR-R는 모두 36문항이며 불안 하위척도 18문항, 회피 하위척도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불안-회피의 두 요인을 측정하게 되어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아주 그렇다(7점)’까지의 7점 척도로 평정되며, 부정적인 문항들은 반대로 채점 된다. 성인애착의 불안차원은 대인관계에서의 거절과 버림받음에 대한 두려움을 나타내고, 회피차원은 친밀함에 대해 지속적으로 불편해 하는 것을 나타낸다. 불안 차원과 회피 차원 모두에서 점수가 낮다는 것은 성인애착이 안정되어 있음을 뜻한다. 즉, 성인애착점수가 높을수록 불안정 애착임을 나타내는 것이다⁽²⁴⁾. Kim⁽²⁴⁾의 연구에서 내적합치도는 불안은 .89, 회피는 .85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도구의 내적합치도 계수를 산출한 결과, 전체 문항에 대한 Cronbach's α 는 .937로 나타났다.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불안은 .936, 회피는 .891로 나타났다.

2.2.2 자아탄력성

본 연구의 자아탄력성 척도는 Klohen⁽²⁵⁾의 California 성격 검사 California personality inventory (CPI)를 Park⁽²⁶⁾이 번안한 척도로 보육교사에게 적합하게 수정 사용한 Sim⁽²⁷⁾의 설문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 도구는 3개의 하위요인인 자신감(9문항), 대인관계 효율성(8문항), 낙관적 태도(10문항)로 구성되었으며, 총 27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척도로 긍정적 진술 4문항과 부정적 진술 2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정적인 진술문으로 되어 있는 문항들은 역점수로 환원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자아탄력성의 하위요인으로 첫 번째 요인인 자신감은 생산성과 진취성, 역경에 맞서는 끈기와 독립심을 의미하며 자신감이 높을수록 업무에 관한 완성도나 생산성이 높으며, 또한 역경에 처했을 경우 이를 극복하려는 경향을 의미하며, 두 번째 요인은 대인관계 효율성으로 개인의 사회적 관계와 사회적 지각에 대한 능력을 의미하며, 대인관계 효율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자신의 동기 행동에 대한 통찰력을 지니고 있으며, 대인관계에서 높은 사회 유대감을 발휘하기 위한 기제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세 번째 요인인 낙관적 태도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스트레스가 발생할 때 타인에게 의존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긍정적인 신념을 유지하며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심순애의 연구에서 내적합치도는 자신감 .81, 대인관계효율성 .80, 낙관적 태도 .80 이었으며, 본 연구도구에서는 전체 문항에 대한 Cronbach's α 는 .951로 나타났다.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자신감은 .892, 대인관계 효율성은 .878, 낙관적 태도는 .884로 나타났다.

2.2.3 직무스트레스

직무스트레스는 한국인의 직무 스트레스 측정을 위하여 개발된 Chang과 Koh⁽²⁸⁾의 한국인 직무 스트레스 측정 도구 단축형(KOSS-SF)으로 측정하였다. 도구는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부 요인은 7개 영역(직무요구, 직무자율, 직무불안정, 관계갈등, 조직체계, 보상부적절, 직장문화)으로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까지의 4점 척도로 평정되며, 부정적인 문항들은 반대로 채점 된다. 총점의 범위는 24-96 점이다. 원 도구의 내적합치도는 Cronbach's $\alpha = .66$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전체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95$ 이었으며, 직무요구 .790, 직무자율 .660, 관계갈등 .823, 직무불안정 .687, 조직체계 .780, 보상부적절 .815, 직장문화 .786로 나타났다.

2.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첫째, 소방공무원의 성인애착, 자아탄력성, 직무 스트레스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

Table 1. Characteristics of Research Subjects

	Category	Frequency (N)	Ratio (%)
Sex	Male	430	89.6
	Female	50	10.4
Age	20's	107	22.3
	30's	175	36.5
	40's	134	27.9
	Over 50's	64	13.3
Education	high School Graduation	122	25.4
	College Graduation	149	31.0
	University Graduation	197	41.0
	Over Graduate School	12	2.5
Married	Married	317	66.0
	Single	162	33.8
	Etc.	1	.2
No. of Children	None	203	42.3
	1 Person	81	16.9
	2 People	169	35.2
	Over 3 People	27	5.6
Household Financial Status	Poor	45	9.4
	a Little Poor	89	18.5
	Normal	325	67.7
	a Little Good	15	3.1
	Good	6	1.3
Employment Period	Less than 1 year	69	14.4
	1 year to 3 years	79	16.5
	3 years to 5 years	44	9.2
	5 years to 7 years	32	6.7
	Over 7 years	256	53.3
Task	Firefighter	262	54.6
	Rescue	25	5.2
	First aid	104	21.7
	Etc.	89	18.5
Task Period	Less than 1 year	144	30.0
	1 year to 3 years	130	27.1
	3 years to 5 years	46	9.6
	5 years to 7 years	25	5.2
	Over 7 years	135	28.1
Total		480	100.0

하였으며,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둘째, 소방공무원의 성인애착, 자아탄력성이 직무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셋째,

소방공무원의 성인애착과 직무 스트레스와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과 소벨테스트(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Table 2. Correlation between Adult Attachment, Ego-resilience, and Job Stress

Division	Adult Attachment			Ego-resilience				Job Stres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Anxiety	1															
Avoidance	2	.516***	1													
Adult Attachment	3	.894***	.845***	1												
Confidence	4	-.631***	-.590***	-.703***	1											
Relationship Effectiveness	5	-.559***	-.571***	-.648***	.830***	1										
Optimistic Attitude	6	-.564***	-.598***	-.665***	.821***	.673***	1									
Ego-resilience	7	-.634***	-.637***	-.729***	.958***	.897***	.910***	1								
Job Requirement	8	.279***	.223***	.291***	-.352***	-.339***	-.347***	-.375***	1							
Job Autonomy	9	.161***	.296***	.255***	-.232***	-.206***	-.224***	-.240***	.122**	1						
Relation Conflict	10	.455***	.478***	.535***	-.462***	-.365***	-.536***	-.497***	.209***	.314***	1					
Job Instability	11	.477***	.402***	.508***	-.518***	-.422***	-.592***	-.558***	.278***	.166***	.517***	1				
Organizational System	12	.248***	.445***	.388***	-.382***	-.363***	-.461***	-.439***	.314***	.335***	.543***	.406***	1			
Inappropriate Compensation	13	.300***	.560***	.480***	-.459***	-.431***	-.548***	-.523***	.366***	.413***	.579***	.447***	.696***	1		
Job Culture	14	.367***	.495***	.488***	-.513***	-.476***	-.573***	-.567***	.336***	.199***	.430***	.472***	.543***	.496***	1	
Job Stress	15	.460***	.594***	.598***	-.598***	-.539***	-.668***	-.656***	.574***	.538***	.711***	.635***	.798***	.814***	.746***	1
M		2.91	3.60	3.25	3.67	3.50	3.71	3.64	2.94	2.91	2.34	2.25	2.73	2.67	2.57	2.67
SD		.90	.75	.72	.64	.68	.62	.59	.71	.66	.68	.83	.64	.69	.78	.48

*p < .05, **p < .01, ***p < .001

3. 연구결과

3.1 소방공무원의 성인애착, 자아탄력성, 직무 스트레스와의 관계

소방공무원의 성인애착, 자아탄력성, 직무 스트레스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소방공무원의 직무 스트레스는 성인애착의 회피($r = .594, p < .001$), 불안($r = .460, p < .001$) 순으로 정의 상관이 높았고, 자아탄력성의 낙관적 태도($r = -.668, p < .001$), 자신감($r = -.598, p < .001$), 대인관계 효율성($r = -.539, p < .001$) 순으로 부의 상관이 높았다. 직무 스트레스의 하위요인인 직무요구, 직무자율, 관계갈등, 직무불안정, 조직체계, 보상부적절, 직장문화 모두 성인애착과는 유의한 정의 상관이 있었고, 자아탄력성과는 부의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공무원의 자아탄력성은 성인애착의 회피($r = -.637, p < .001$), 불안($r = -.634, p < .001$) 순으로 높은 부의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2 소방공무원의 성인애착이 직무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소방공무원의 성인애착이 직무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소방공무원의 성인애착이 직무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R^2 = .385$ 로 전체 변동의 38.5%로 회귀모형을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변수간 다중공선성을 진단하기 위하여 분산팽창계수(Variable inflation factor: VIF)와 허용치(Tolerance)를 살펴보았으며, 일반적으로 분산팽창

계수가 10이상이거나 허용치가 .1보다 작으면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게 된다. 본 분석에서 변수들의 VIF값은 모두 10 이하였고, 허용치는 .1보다 크게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모형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추정된 모형은 유의한 것을 알 수 있으며($F = 149.287, p < .001$), 성인애착의 회피($\beta = .486, p < .001$), 불안($\beta = .209, p < .001$) 순으로 직무 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소방공무원의 회피와 불안이 높을수록 직무 스트레스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세부적으로 직무 스트레스의 직무요구에 대한 결과는, $R^2 = .086$ 으로 전체 변동의 8.6%로 회귀모형을 설명하고 있으며, 모형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추정된 모형은 유의하였다($F = 22.583, p < .001$). 성인애착의 불안($\beta = .224, p < .001$), 회피($\beta = .108, p < .05$) 순으로 직무요구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소방공무원의 불안과 회피가 높을수록 직무요구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직무 스트레스의 직무자율에 대한 결과는, $R^2 = .088$ 로 전체 변동의 8.8%로 회귀모형을 설명하고 있으며, 모형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추정된 모형은 유의하였다($F = 22.932, p < .001$). 성인애착의 회피($\beta = .290, p < .001$)만 직무자율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소방공무원의 회피가 높을수록 직무자율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직무 스트레스의 관계갈등에 대한 결과는, $R^2 = .288$ 로 전체 변동의 28.8%로 회귀모형을 설명하고 있으며, 모형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추정된 모형은 유의하였다($F = 96.556,$

Table 3. The Effects of Adult Attachment on Job Stress

Independent Variable		Dependent Variable	B	β	t	p	R^2	adj R^2	F				
Job Stress		(constant)	1.221		14.160***	.000	.385	.382	149.287***				
		Anxiety	.113	.209	4.982***	.000							
		Avoidance	.312	.486	11.608***	.000							
Job stress		Job Requirement		(constant)	2.055		.086	.083	22.583***				
				Anxiety	.178	.224				4.381***	.000		
				Avoidance	.102	.108				2.108*	.036		
		Job autonomy		(constant)	1.974		13.756***	.000	.088	.084	22.932***		
						Anxiety	.008	.011				.217	.828
						Avoidance	.255	.290				5.688***	.000
		Relation Conflict		(constant)	.627		4.795***	.000	.288	.285	96.556***		
						Anxiety	.216	.284				6.306***	.000
						Avoidance	.300	.332				7.359***	.000
Job Instability		(constant)	.427		2.647**	.008	.261	.257	84.043***				
				Anxiety	.339	.368				7.998***	.000		
				Avoidance	.233	.212				4.620***	.000		
Organizational System		(constant)	1.352		10.320***	.000	.199	.196	59.210***				
				Anxiety	.018	.026				.535	.593		
				Avoidance	.369	.432				9.037***	.000		
Inappropriate Compensation		(constant)	.815		6.268***	.000	.314	.311	108.917***				
				Anxiety	.012	.016				.355	.723		
				Avoidance	.506	.552				12.460***	.000		
Job Culture		(constant)	.652		4.309***	.000	.262	.259	84.523***				
				Anxiety	.131	.152				3.312**	.001		
				Avoidance	.428	.416				9.065***	.000		

* $p < .05$, ** $p < .01$, *** $p < .001$

$p < .001$). 성인애착의 회피($\beta = .332$, $p < .001$), 불안($\beta = .284$, $p < .001$) 순으로 관계갈등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소방공무원의 회피와 불안이 높을수록 관계갈등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직무 스트레스의 직무불안정에 대한 결과는, $R^2 = .261$ 로 전체 변동의 26.1%로 회귀모형을 설명하고 있으며, 모형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추정된 모형은 유의하였다($F = 84.043$, $p < .001$). 성인애착의 불안($\beta = .368$, $p < .001$), 회피($\beta = .212$, $p < .001$) 순으로 직무불안정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소방공무원의 불안과 회피가 높을수록 직무불안정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직무 스트레스의 조직체계에 대한 결과는, $R^2 = .199$ 로 전체 변동의 19.9%로 회귀모형을 설명하고 있으며, 모형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추정된 모형은 유의하였다($F = 59.210$, $p < .001$). 성인애착의 회피($\beta = .432$, $p < .001$)만 조직체계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소방

공무원의 회피가 높을수록 조직체계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직무 스트레스의 보상부적절에 대한 결과는, $R^2 = .314$ 로 전체 변동의 31.4%로 회귀모형을 설명하고 있으며, 모형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추정된 모형은 유의하였다($F = 108.917$, $p < .001$). 성인애착의 회피($\beta = .552$, $p < .001$)만 보상부적절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소방공무원의 회피가 높을수록 보상부적절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직무 스트레스의 직장문화에 대한 결과는, $R^2 = .262$ 로 전체 변동의 26.2%로 회귀모형을 설명하고 있으며, 모형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추정된 모형은 유의하였다($F = 84.523$, $p < .001$). 성인애착의 회피($\beta = .416$, $p < .001$), 불안($\beta = .152$, $p < .01$) 순으로 직장문화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소방공무원의 회피와 불안이 높을수록 직장문화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Table 4. The Effect of Ego-resilience on Job Stress

Independent Variable		Dependent Variable	B	β	t	p	R^2	adj R^2	F
Job Stress		(Constant)	4.710		45.748***	.000	.461	.457	135.498***
		Confidence	-.017	-.022	-.282	.778			
		Relationship Effectiveness	-.109	-.152	-2.522*	.012			
		Optimistic Attitude	-.430	-.547	-9.283***	.000			
Job Stress	Job Requirement	(Constant)	4.591		24.040***	.000	.142	.136	26.157***
		Confidence	-.083	-.074	-.753	.452			
		Relationship Effectiveness	-.163	-.155	-2.031*	.043			
		Optimistic Attitude	-.210	-.182	-2.443*	.015			
	Job Autonomy	(Constant)	3.900		20.983***	.000	.058	.052	9.760***
		Confidence	-.110	-.106	-1.021	.308			
		Relationship Effectiveness	-.046	-.047	-.592	.554			
		Optimistic Attitude	-.114	-.106	-1.361	.174			
	Relation Conflict	(Constant)	4.563		27.394***	.000	.290	.285	64.670***
		Confidence	-.117	-.109	-1.214	.225			
		Relationship Effectiveness	.048	.047	.686	.493			
		Optimistic Attitude	-.529	-.479	-7.074***	.000			
	Job Instability	(Constant)	5.258		27.320***	.000	.354	.349	86.759***
		Confidence	-.142	-.109	-1.273	.204			
		Relationship Effectiveness	.013	.011	.163	.871			
		Optimistic Attitude	-.683	-.510	-7.896***	.000			
	Organizational System	(constant)	4.570		27.759***	.000	.221	.216	45.014***
		Confidence	.129	.128	1.360	.175			
		Relationship Effectiveness	-.153	-.160	-2.212*	.027			
		Optimistic Attitude	-.479	-.458	-6.471***	.000			
Job Stress	Inappropriate Compensation	(Constant)	5.016		30.188***	.000	.310	.306	71.434***
		Confidence	.130	.120	1.356	.176			
		Relationship Effectiveness	-.178	-.174	-2.549*	.011			
		Optimistic Attitude	-.594	-.530	-7.949***	.000			
	Job Culture	(Constant)	5.388		29.626***	.000	.343	.339	83.019***
		Confidence	.023	.019	.222	.824			
		Relationship Effectiveness	-.202	-.176	-2.638**	.009			
		Optimistic Attitude	-.591	-.471	-7.236***	.000			

* p < .05, ** p < .01, *** p < .001

3.3 소방공무원의 자아탄력성이 직무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소방공무원의 자아탄력성이 직무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

향을 살펴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소방공무원의 자아탄력성이 직무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R^2 =$

.461로 전체 변동의 46.1%로 회귀모형을 설명하고 있으며, 모형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추정된 모형은 유의하였다($F = 135.498, p < .001$). 자아탄력성의 낙관적 태도($\beta = -.547, p < .001$), 대인관계 효율성($\beta = -.152, p < .05$) 순으로 직무 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소방공무원의 낙관적 태도와 대인관계 효율성이 낮을수록 직무 스트레스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세부적으로 직무 스트레스의 직무요구에 대한 결과는, $R^2 = .142$ 로 전체 변동의 14.2%로 회귀모형을 설명하고 있으며, 모형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추정된 모형은 유의하였다($F = 26.157, p < .001$). 자아탄력성의 낙관적 태도($\beta = -.182, p < .05$), 대인관계 효율성($\beta = -.155, p < .05$) 순으로 직무요구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소방공무원의 낙관적 태도와 대인관계 효율성이 낮을수록 직무요구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직무자율에 대한 결과는, $R^2 = .058$ 로 전체 변동의 5.8%로 회귀모형을 설명하고 있으며, 모형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추정된 모형은 유의하였으나($F = 9.760, p < .001$), 자아탄력성은 유의수준 5%에서 직무자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갈등에 대한 결과는, $R^2 = .290$ 로 전체 변동의 29.0%로 회귀모형을 설명하고 있으며, 모형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추정된 모형은 유의하였다($F = 64.670, p < .001$). 자아탄력성의 낙관적 태도($\beta = -.479, p < .001$)만 관계갈등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소방공무원의 낙관적 태도가 낮을수록 관계갈등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직무불안정에 대한 결과는, $R^2 = .354$ 로 전체 변동의 35.4%로 회귀모형을 설명하고 있으며, 모형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추정된 모형은 유의하였다($F = 86.759, p < .001$). 자아탄력성의 낙관적 태도($\beta = -.510, p < .001$)만 직무불안정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소방공무원의 낙관적 태도가 낮을수록 직무불안정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조직체계에 대한 결과는, $R^2 = .221$ 로 전체 변동의 22.1%로 회귀모형을 설명하고 있으며, 모형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추정된 모형은 유의하였다($F = 45.014, p < .001$). 자아탄력성의 낙관적 태도($\beta = -.458, p < .001$), 대인관계 효율성($\beta = -.160, p < .05$) 순으로 조직체계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소방공무원의 낙관적 태도와 대인관계 효율성이 낮을수록 조직체계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보상부적절에 대한 결과는, $R^2 = .310$ 로 전체 변동의 31.0%로 회귀모형을 설명하고 있으며, 모형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추정된 모형은 유의하였다($F = 71.434, p < .001$). 자아탄력성의 낙관적 태도($\beta = -.530, p < .001$), 대인관계 효율성($\beta = -.174, p < .05$) 순으로 보상부적절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소방공무원의 낙

관적 태도와 대인관계 효율성이 낮을수록 보상부적절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직장문화에 대한 결과는, $R^2 = .343$ 로 전체 변동의 34.3%로 회귀모형을 설명하고 있으며, 모형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추정된 모형은 유의하였다($F = 83.019, p < .001$). 자아탄력성의 낙관적 태도($\beta = -.471, p < .001$), 대인관계 효율성($\beta = -.176, p < .05$) 순으로 직장문화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소방공무원의 낙관적 태도와 대인관계 효율성이 낮을수록 직장문화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3.4 소방공무원의 성인애착과 직무 스트레스와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매개효과에 대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Baron과 Kenny⁽²⁹⁾가 제안한 매개효과 검증방법을 사용하였다. Baron과 Kenny의 연구에 의하면, 매개역할은 세 단계의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검증될 수 있다. 먼저 첫 단계에서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며, 마지막 세 번째 단계에서는 독립변수와 매개변수가 동시에 종속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해야 한다. 이 때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의 영향력이 세 번째 단계에서보다 두 번째 단계에서 더 커야 매개효과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으며(부분 매개 효과, *partial mediating*), 특히 세 번째 단계에서의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의 영향력이 유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매개변수가 완전 매개효과(*complete mediating*)를 보인다고 한다.

소방공무원의 성인애착과 직무 스트레스와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5, Table 6과 같다.

1단계에서는 성인애착의 회피($\beta = -.422, p < .001$), 불안($\beta = -.417, p < .001$) 순으로 매개변수인 자아탄력성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2단계에서는 성인애착의 회피, 불안 순으로 직무 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단계에서는 독립변수인 성인애착에 자아탄력성을 추가 투입하여 직무 스트레스에 대한 영향력은 자아탄력성($\beta = -.457, p < .001$), 회피($\beta = .294, p < .001$) 순으로 높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소방공무원의 자아탄력성이 낮을수록, 회피가 높을수록 직무 스트레스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불안은 3단계에서 더 이상 유의하지 않으므로, 자아탄력성은 소방공무원의 불안과 직무 스트레스와의 관계를 완전매개하며, 회피는 2단계에 이어 여전히 직무 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자아탄력성은 소방공무원의 회피와 직무 스트레스와의 관계를 부분매개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소벨테스트(Sobel test)⁽³⁰⁾ 결과 소방공무원의 불안과 직무 스트레스와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는 유의하였고($Z = 7.255, p < .001$), 소방공무원의 회피와 직무

Table 5. Effects of Adult Attachment and Ego-resilience on Job Stress

Division		Dependent Variable : Job Stress					
		Model 1			Model 2		
		B	β	t	B	β	t
(Constant)		1.221		14.160***	3.327		14.092***
Adult Attachment	Anxiety	.113	.209	4.982***	.010	.018	.422
	Avoidance	.312	.486	11.608***	.189	.294	6.751***
Ego-resilience					-.375	-.457	-9.46***
R^2		.385			.482		
adj R^2		.382			.479		
ΔR^2					.097		
F		149.287***			147.908***		
ΔF					89.656***		

*** p < .001

Table 6. Results of Mediating Effects of Ego Resilience (Dependent Variables : Job Stress)

Srep	Variables	B	β	R^2	F	Effect		
Step 1: Independent→Mediating	Anxiety	-.275	-.417***	.533	272.088***	○		
	Avoidance	-.330	-.422***			○		
Step 2: Independent→Dependent	Anxiety	.113	.209***	.385	149.287***		○	
	Avoidance	.312	.486***				○	
Step 3: Independent-Mediating→Dependent	Anxiety	.010	.018	.482	147.908***			×
	Avoidance	.189	.294***					○
	Ego-resilience	-.375	-.457***					○ ^{ab}

*** p < .001

^a : Full mediation, ^b : Partial mediation

스트레스와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는 유의하였다($Z = 7.235, p < .001$).

4. 토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소방공무원의 성인애착과 직무스트레스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소방공무원의 스트레스가 우울, 삶의 만족, 정신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을 주로 연구한 반면, 본 연구는 소방공무원의 개인적인 변인인 성인애착이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중점을 두고 개인에게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매개변인을 상정하여 성인애착과 직무스트레스의 관계를 알아보고자하였다. 이를 통해 성인애착이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하는지 확인해보고자 하였으며 더 나아가 소방공무원의 성인애착과 직무스트레스, 자아탄력성에 대한 이해

를 높이고 우울, 불안과 같은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에 대한 치료적 개입과 적절한 대처전략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방공무원의 성인애착과 자아탄력성, 직무스트레스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성인애착과 직무 스트레스와의 관계에서 성인애착의 하위요인인 회피와 불안 모두 직무스트레스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불안정 성인애착이 높을수록 직무스트레스의 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불안정 성인애착이 클수록 생활스트레스가 증가한다는 Sim과 Kim⁽³¹⁾의 연구 및 간호사의 불안정 성인애착 유형이 안정된 성인애착 유형보다 직무스트레스가 높다는 Oh와 Sung⁽³²⁾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나, 콜센터 중간관리자의 불안정 성인애착과 직무스트레스가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낸다고 보고한 Lim⁽³³⁾의 연구와는 상반된 결과이다.

소방공무원의 성인애착과 자아탄력성과의 관계에서 성

인애착의 하위요인 중 회피와 불안 순으로 자아탄력성과 부적 상관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불안정 성인애착이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의 수준이 낮은 것을 의미하며, 이는 대학생의 성인애착과 자아탄력성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³⁴⁾, 상담자의 성인애착 유형과 자아탄력성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³⁵⁾와 맥락을 같이한다.

소방공무원의 자아탄력성과 직무스트레스와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은 직무스트레스와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자아탄력성은 직무스트레스의 하위요인 중 직장문화, 직무불안정, 보상부적절, 관계갈등, 조직체계, 직무요구, 직무자율 순으로 부적 상관관계 수준이 높았다. 이는 보육교사의 자아탄력성이 직무스트레스와 부적 상관관을 보인다는 연구^(36,37), 미용서비스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자아탄력성과 직무스트레스, 직무소진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연구⁽³⁸⁾와 동일한 결과이다.

둘째, 소방공무원의 성인애착은 성인애착의 회피, 불안 순으로 직무 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소방공무원의 회피와 불안이 높을수록 직무 스트레스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불안정 애착의 수준이 높은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기 때문에 불안정 성인애착의 수준이 낮은 사람에 비해 정서조절을 효과적으로 하지 못해 스트레스를 더 받게 되며⁽³¹⁾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스스로를 억압하고 방어하여 자신의 정서에 필요이상으로 방어적이라는^(39,40) 연구와 동일한 맥락이다.

셋째, 소방공무원의 자아탄력성은 낙관적 태도, 대인관계 효율성 순으로 직무 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신감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자아탄력성의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낙관적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스트레스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경감시킨다는 연구⁽⁴¹⁾와 자아탄력성은 정서조절 능력, 회복능력을 통해 정서적 안정과 긍정적 업무태도를 가져와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환경에서 평정심을 유지하고 위협을 받아도 원상태로 빠르게 회복하여 스트레스로 인한 영향을 적게 받는다는 연구⁽⁴²⁾, 자아탄력성이 높은 개인은 낮은 개인보다 긴장의 강도를 더 잘 조절할 수 있고 스트레스 상황을 융통성 있게 더 잘 대처한다⁽⁴³⁾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맥락이 일치한다.

넷째, 소방공무원의 성인애착과 직무스트레스와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자아탄력성은 소방공무원의 성인애착 하위요인 중 불안과 직무 스트레스와의 관계를 완전매개하며, 성인애착의 하위요인 중 회피와 직무 스트레스와의 관계를 부분매개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즉, 성인애착 중 불안은 자아탄력성을 통해 직무스트레스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회피는 직무스트레스에 직접적인 영향과 자아탄력성을 통한 간접영향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성인애착의

불안이나 회피의 수준이 높은 사람이 자아탄력성이 낮으면 직무 스트레스를 겪을 가능성이 높지만, 자아탄력성이 높으면 직무 스트레스를 겪을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불안의 수준이 높더라도 자아탄력성의 수준에 따라서 직무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보육교사나 간호사, 상담자 등의 직종에 대한 성인애착과 직무스트레스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며,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소방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에 성인애착, 특히 불안정 애착이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규명하였으며, 자아탄력성이 매개변인의 역할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 대한 제한점과 후속연구에 대한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에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으로 연구대상을 표집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여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둘째, 소방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와 자아탄력성은 항상 일관되는 요인이 아니라 소방공무원의 상황에 따라 가변할 수 있어 횡단적 연구를 통해서 결과를 도출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셋째, 본 연구의 측정도구는 자기보고식 질문지로서 연구 참여자가 방어적으로 응답하였거나,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게 보고했을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타인의 관찰 및 평가를 도입하거나 다양한 방식으로 자료를 수집한다면 이러한 한계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제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가지는 시사점으로는 첫째, 소방공무원의 자아탄력성은 성인애착 중 불안정애착과 직무스트레스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자아탄력성의 중요성과 소방공무원의 직업적 특성을 고려한 자아탄력성을 증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둘째, 소방공무원의 불안정애착이 소방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은 소방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의 수준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업무환경, 업무강도 등의 외적인 요인과 함께 개인의 심리, 정신적인 요인도 같이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소방공무원의 정신적, 심리적 안정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 관심과 소방공무원의 개인적 변인들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References

1. Y. S. Moon, "The Level and Job-related Provoking Factors of Firefighters' Stress", *The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Studies*, Vol. 15, No. 1, pp. 191-141 (2008)
2. J. Chae, S. C. Woo and G. B. Ko, "An Analysis of Factors Affecting the Job Stress of Firefighters",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Fire Science & Engineering*, Vol. 26, No. 5, pp.

- 28-34 (2012)
3. B. W. Kang,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Stress and Socio-Psychological Stress of Firefighter", *The Korean Journal of Emergency Medical Services*, Vol. 13, No. 1, pp. 35-48 (2009).
 4. S. K. Lee, "An Empirical Study on the Job Stress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of the Firefighters",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Chungang University (2007).
 5. R. Kobak and A. Sceery, "Attachment in Late Adolescence : Working Models Affect Regulation, and Representation of Self and Others", *Child Development*, Vol. 59, pp. 135-146 (1988).
 6. J. Bowlby, "A Secure Base : Parent-child Attachment and Healthy Human Development", New York : Basic Books. (1988).
 7. F. G. Lopez, A. M. Mauricio, B. A. Gormley, T. Simko and E. Berger, "Adult Attachment Orientations and College Student Distress : The mediating Role of Problem Coping Styles",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Vol. 79, No. 4, pp. 459-464 (2001).
 8. J. Bowlby, "Attachment and a Loss (Vol. 3)", New York : Basic Books (1980).
 9. M. A. Kemp and G. J. Neimeyer, "Interpersonal Attachment : Experiencing, Expressing, and Coping with Stres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Vol. 46, No. 3, pp. 388-394 (1999).
 10. M. Mikulincer and O. Nachshon, "Attachment Style and Patterns of Self Disclosu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61, No. 3, pp. 321-331 (1991).
 11. M. Mikulincer, P. R. Shaver and D. Pereg, "Attachment Theory and Affect Regulation : The Dynamics, Development, and Cognitive Consequences of Attachment-related Strategies", *Motivation and Emotion*, Vol. 27, No. 2, pp.77-102 (2003).
 12. K. A. Brennan and P. R. Shaver, "Dimensions of Adult Attachment, affect Regulation and Romantic Relationship Functioning",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Vol. 21, No. 3, pp. 267-283 (1995).
 13. S. I. Shin, "The Relationships of Stress Coping Styles and College Adjustment according to Adult Attachment Style",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 22, No. 4, pp. 1-21 (2015).
 14. J. Block and A. M. Kremen, "IQ and Ego-resiliency : Conceptual and Empirical Connections and Separat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70, No. 2, pp. 349-361 (1996).
 15. J. Block, "An Experimental Investigation of the Construct of Ego-control", Ph.D. Dissertation, Stanford University (1980).
 16. M. Rutter, "Resilience in Face of Adversity : Protective Factors and Resilience to Psychiatric Disorder", *British Journal of Psychiatric*, Vol. 147, pp. 598-611 (1985).
 17. A. R. Kim, "The Relationship of Self-Resilience, Hardiness and Stress Coping style", Maste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2010).
 18. J. E. Goo, "The Relationships between Self-Resilience, Positive Emotion, Social Support and Adolescents' Adjustment in Family Life-School Life",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Pusan National University (2000).
 19. M. H. Kim, "Relationship Between Ego-resilience, Family Cohesion and Adaptability",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Inha University (2003).
 20. Y. S. Park, "A Study on the Factors Influencing School Adjustment of Adolescents from Divorced Families", Maste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Ewha Woman's University (2003).
 21. M. H. Kim, "A Study on the Effect of Internet and Game Addition on the Mental Health and Lives of the Youth : Centering Around Kunsan City",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Wonkwang University (2006).
 22. J. Y. Suh, "A Study of the Influence of Parental Divorce on Childme's Adaptation : Focusing on Resilience", Master's Thesis, The Graduated School Yonsei University (2002).
 23. R. C. Fraley, N. G. Walle and K. A. Brennan, "An Item Response Theory Analysis of Self Report Measures of Adult Attach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78, pp. 350-365 (2000).
 24. S. H. Kim, "Adaptation of the Experiences in Close Relationship-Revised Scale into Korean :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nd Item Response Theory Approaches",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2004).
 25. E. C. Klohnen, "Conceptual Analysis and Measurement of the Construct of Ego-resilienc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70, No. 5, pp. 1067-1079 (1996).
 26. H. J. Park, "Perceived Stress, Coping and Depression According to Ego-resilience",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Korea University (1996).
 27. S. A. Sim, "Influence of Ego-Resiliency and Social Support on the Burnout of Daycare Teachers", Maste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Sookmyung Women's University (2007).
 28. S. J. Chang and S. B. Koh, "Development of the Korean Occupational Stress Scale (KOSS)", *The Korean Journal of Stress Research*, Vol. 13, No. 3, pp. 183-197 (2005).
 29. M. R. Baron and D. A. Kenny, "Moderator-Mediator Variables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 and Social Psychology, Vol 51, No. 6, pp. 1173-1182 (1986).
30. M. E. Sobel, "Asymptotic Confidence Intervals for Indirect Effect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s", In S. Leinhardt (Ed.) Sociological Methodology 1982 (pp. 290-312). Washington DC: American Sociological Association. (1982).
 31. S. Y. Sim and Y. S. Kim, "The Relationship Between Uncertainty Adult Attachment and Life Stress: Mediating Effect of Resilience", Korea Journal of Counseling, Vol. 16, No. 5, pp. 95-105 (2015).
 32. E. J. Oh and K. M. Sung, "Nurses' Organizational Commitment, Job Satisfaction and Job Stress according to their Adult Attachment Styles", Journal of East-West Nursing Research, Vol. 17, No. 2, pp. 117-124 (2011).
 33. H. K. Lim, "Call Center Middle-managers' Adult Attachment Styles, Job Stress,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Civilization Journal, Vol. 14, No. 2, pp. 189-212 (2013).
 34. J. Y. Park, J. M. Kim and E. J. Shin, "A Effect of Adult Attachment on Ego-Resilience in Undergraduates : Focusing on a Mediating Effect of Early Maladaptive Schema", Journal of Emotional & Behavioral Disorders, Vol. 33, No. 3, pp. 1-20 (2017).
 35. H. J. Park and B. W. Kim, "The Relationship Between Adult Attachment Styles, Resilient and Burnout of Counselors",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Vol. 22, No. 1, pp. 33-52 (2010).
 36. L. J. Kim and Y. A. Hong, "The Influence of Ego-resilience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n Job Stress of Childcare Teachers", Journal of Korean Child Care and Education, Vol. 9, No. 4, pp. 55-74 (2013).
 37. M. W. Chi and J. Y. Lee, "The Effect of Emotional Workers' Ego-resilience and Stress-coping Methods on Their Job Stress", Korean Journal of Child Education and Care, Vol. 12, No. 2, pp. 249-263 (2012).
 38. Y. S. Sheen and S. H. Lim, "An Analysis of Correlation between Ego-Resilience and the Job Stress, Burn-out", The International Society of Health and Beauty, Vol. 9, No. 2, pp. 45-55 (2015).
 39. Y. M. Cho and H. K. Lee, "The Relation Between Adult Attachment and Social Anxiety: The Mediation Effect of Basic Psychological Needs Satisfaction and Experiential Avoidance", Korea Journal of Counseling, Vol. 14, No. 2, pp. 1227-1245 (2013).
 40. H. J. Lee and C. M. H. Ahn, "Maternal Insecure Adult Attachment and Psychological Control: Mediating Role of Mentalization and Negative Emotion", The Korean Journal of Woman Psychology, Vol. 17, No. 3, pp. 413-434 (2012).
 41. H. J. Park, "Perceived Stress, Coping and Depression According to Ego-resilience",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Korea University (1996).
 42. S. M. Lee and J. E. Pang, "The Mediating Effect of Ego-resilience on Correlation between Job Stress and Turnover Intention", Journal of Future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 22, No. 3, pp. 83-104 (2015).
 43. H. W. Chung and O. H. Lee, "The Influence of Job Stress, Ego-resiliency and Social Support on Job Satisfaction Among Beginning and Experienced Preschool Teachers", Korean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 31, No. 3, pp. 31-53 (2011).